

## 중국 영토공정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China's Territory Expanding

신용우\* · 오원규\*\*

Shin Yong-Woo · Oh, Won-Kyu

### 초 록

중국이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그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을 필두로 한 영토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국 영토공정의 원인과 목적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수복하는 데 본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중국이 실시하는 영토공정인 동북공정과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은 물론 근대공정까지 실시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밝히고 그 내용을 점검하고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후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은 영토공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화와 역사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왜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모순을 짚어서 맞대응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차별성을 가졌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왜곡은 물론 우리 스스로 중국이 주장하는 것들을 각기 딴 생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또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영토공정, 동북공정, 요하문명론, 영토수복

---

\*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E-mail : dudwk3437@hanmail.net)

\*\* 경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E-mail : wkoh3419@hanmail.net)

## ABSTRACT

China has been tried to make our former territory named “Guryubuel” as their territory and history using the “Northeast Expanding Project” and other territory expanding projects. This study aimed to make a correspond measure to the cause, purpose and statues on the Northeast Expanding Project of China, to help restoration of Korean territory.

For this purpose, it was reviewed the detail about Territory Projects of China. This study included not only the “Northeast Expanding Project” but also the Dandae Project, Tamwon Project and the theory of ‘Yoha Civilization’ to reveal the project’s cause, purpose and detail to analysis the issues and to make a countermeasure.

China has been distorted our cture and history on purpose for the territory expanding project. Hence, this study has distinction from the previous approach on the China’s territory projects since it has been focused on dilemma of cultural and historical distortion by some Chinese.

This study pointed out the distortion of the history and culture of China, as well as Korean mistakes to interpret the China’s claim into our own way.

It is emphasized that progressive response of Korean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our territory against the Chinese territory expanding projects.

**Keywords:** Territory Project, Northeast Project, Theory of Yoha Civilization, Culture, Restoration of territor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의 3대 구성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지 못하면 완전한 국가로 볼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무엇을 구성하는 요소이

든지 그 구성요소 상호 간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는 있다.

첫째로 세 요소 중 주권이 없다면 일정한 영역 안에 동질감을 가진 사람끼리 산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어서 마음대로 처신할 수가 없다. 실례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제병합을 당하고 지내온 36년이라는 세월이 바로 그런 경우다.

지금도 지구에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 우리나라

라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에 무력으로 점거당한 티베트나 위구르, 내몽골 등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그들은 중국으로부터 무력으로 침공을 당하고도 전 세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가운데 중국의 자치구라는 명목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는 주권이 없지만,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언젠가는 주권을 쟁취하는 기회가 올 것이다.

둘째로 국민이 없어 일정한 영토를 마련해도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는 없다. 하지만 영토를 확보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 즉 국민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토가 없으면 국민들이 일정영역에 모여서 살 수가 없다. 즉, 국가 건설이 아예 어렵다. 다만 이스라엘처럼 이미 세워졌던 국가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토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토가 없으면 떠돌이 신세가 되어, 국민은 흩어지고 주권마저 불확실해져서 국가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비교해보았듯이 국가의 3요소 중 가

장 중요한 것은 영토라고 할 수 있다. 지구에 사람이 존재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 영토가 있고 영토에 사람이 모여든다.

이것은 간단하게 자본주의 논리와 비교할 수 있다. 국민을 사람에 비유하고 주권을 권력에, 영토를 자본주의 삶의 기반이 되는 돈에 비유해 보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은 단순히 삶을 영유하는 수단만은 아니다. 돈이 있는 곳에 권력과 사람이 모인다.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곳에는 영토가 마련되면 국민이 모이고 국민이 모이면 주권이 성립되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이런 영토논리를 묘하게 적용하고 있다.

남의 나라 영토라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유한 후, 그곳에 사는 국민을 자국민으로 편입시키고, 자신들의 주권이 미치게 하면, 그 영토가 중국에 귀속된다는 계산이다. 그런 계산하에 앞서 이야기한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등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영토인 압록강 너머 구려벌<sup>1)</sup>까지 자기네 영토로 고착시키려 한다. 중국은 그런 야욕을 서슴없이 들어내면서 동북공정을 대표로 하는 중국 영토공정<sup>2)</sup>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국 영토공정의 하나인 동북공정에 대하여 잠시 반박하고

1) '구려벌'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자가 우리나라 영토 수복을 주제로 소설을 쓰면서 새롭게 사용했던 단어다. 그 영역은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주라고 부르는 바람에 지도에도 만주로 표시된 영역과 거의 비슷하다. 뒤에서 또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 때 설명하겠지만 용어에 대한 정리는 먼저 한다. 구려벌은 고조선 이래 고구려와 대진국(발해)이 맥을 이었던 영토를 의미한다. 본래 고조선의 영토로 우리 선조들이 소유했던 영토이니 조선벌이 더 합당할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이씨 왕조가 다스리던 조선과 현재 북한의 국가 명칭인 조선과의 혼동을 피하고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고구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 생각에서 '구려벌'로 명명한다.

2) '영토공정'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자가 처음 제시하는 용어이다. 동북공정으로 대표되는 중국 영토공정은 동북공정,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을 모두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처음 수면으로 부상시켰을 때 우리는 중국이 고구려사

대응하는 듯 했지만 지금은 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잠잠하다. 중국의 속내를 정말 몰라서 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대응하지 않는 것인지 실로 답답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우리의 구려벌을 영원히 중국 손아귀에 넘겨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영원히 중국에 넘겨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영토공정의 원인과 목적 및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수복하는 데 일익을 더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중국이 추구하는 영토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 중 우리나라와 관계가 되는 동북공정,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 근대공정<sup>3)</sup>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해 연구하

는 것을 범위로 삼는다.

### 1.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이미 연구되고 공개된 각 공정의 특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각 공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보던 기존의 시각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중국이 내세우는 논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한 후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저지르고 있는 문화적인 오류를 지적하고 분석하여 그 반론을 제기한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더라도 훗날 필요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왜곡하고자 한다면 알면서 왜곡하는 것이기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문화는 그 지방에 살아온 이들이 벌인 모든 행위와 사고의 연속된 축적이기 때문에 왜곡할 수 없다. 아무리 훗날 자신들의 문화를 심으려 해도 어느 구석인가에는 반드시 고유 문화가 남아 있

---

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려고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이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함으로써 고구려가 통치하던 영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고 한다는 속내를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단대공정과 탐원공정을 실시하는 이유가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넘어서서 고조선 역사까지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어서 고조선 이래 출근 우리 영토였던 땅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것이 그 기본 목적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근대사를 왜곡하거나 고대 우리 무형문화인 아리랑을 중국의 문화유산이라고 등재하는 등의 심각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시 언급할 것이지만 이 역시 영토와 관계가 되는 것으로 본 연구자는 '근대공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제는 동북공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영토에 관한 모든 공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에 중국이 우리의 영토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공정을 합하여 '영토공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한다.

3) '근대공정'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자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용어이다. 중국이 그동안 고대사에 관한 왜곡을 중심으로 공정을 펼쳐다가 근대에 들어서면서 고대는 물론 근대까지 문화 왜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정을 뜻하는 용어다. 자세한 설명은 본문을 참조 바란다. 이 용어의 기 사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2014년 4월 9일 <http://www.riss.kr>을 검색했으나 근대공정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다. 같은 사이트에서 중국의 문화 왜곡을 검색하자 이성무,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와 중국의 역사 왜곡』 北韓, Vol.- No.392, 2004, 북한문제연구소가 검색되었으나 근대공정이라는 용어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었다. 또 근대사 왜곡에 관한 논문도 검색하여 안병우,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전근대사 서술 추이』, 白山學報, Vol.- No.75, 2006, 백산학회가 검색되었으나 본 연구자의 근대공정이라는 용어와는 관계가 없는 논문이었다. 따라서 '근대공정'이라는 용어는 본 연구자가 처음 제시하는 용어임을 밝혀둔다.

기 마련이다.<sup>4)</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적인 접근에 의해 중국이 왜곡하고 있는 문화의 실태를 분석해서 구려벌이 우리 영토임을 밝히고자 한다.

### 1.2.3.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선행연구에 관하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검색<sup>5)</sup>한 결과 제목에 ‘영토공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이나 단행본 등의 자료는 단 한 건도 검색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각 개별적으로 검색했을 때 동북공정에 관한 자료는 총 1,302건이 검색되었다. 단행본이 7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학술지 논문이 337건, 학위논문이 179건 등이었다. 단대공정에 관한 자료는 총 99건으로 단행본 69건, 국내학술지 논문 11건, 학위논문 8건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탐원공정에 관한 자료는 더 적은 총 31건으로 단행본 14건, 국내학술지 논문 14건, 학위논문 1건 등이었다.

이상의 검색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동북공정이 발표되었을 때에 비하면 그 뒤에 발표된 공정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처음 발표된 동북공정보다 뒤에 이루어진 공정인데 우리는 그 반대로 초기에는 많은 대응을 하다가 점점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sup>6)</sup>

## 2. 영토공정의 일반적 고찰

### 2.1. 영토공정의 원인과 목적

중국이 영토공정을 실시한 원인은 동서남북에 완벽한 한족 방어막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서북공정으로 위구르를 자치구라는 명목으로 합병하고 북부공정을 통해서 내몽골을 자치구로 만든 후, 무력으로 서남공정을 일으켜 티베트 역시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합병하여 공간을 확장한 중국으로서는, 동북쪽까지 자신들의 영역으로 확고하게 구축한다면 동서남북에 완벽한 한족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본디 중국은 한족(漢族)만이 중국 고유의 민족이고 나머지 소수민족들은 이민족(異民族)이라고 했다. 특히 한족이 거주하고 있는 양쯔강과 황하를 중심으로 중국의 문명발상지인 중화(中華)라 하였고 동서남북으로는 동이(東夷)·서융(西戎)·남만(南蠻)·북적(北狄)이라는 오랑캐들이 들끓는다고 했다. 한족의 문화만이 최고의 문화라는 생각에 나머지 민족의 문화를 알잡아 보면서 일컫던 말이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중화사상이고 그 중화사상에 젖어서 한족들이 살던 곳을 중원(中原)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원나라를 세워 중국을 지배했던 몽고족(蒙古族)이나 금나라를 세워서 중국을 지배한 후 청나라로

4) 신용우, “문화적 접근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 근거 연구”, 『대한 부동산 학회지』, 제31권 제 1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103, pp.103-108.

5) 2014년 4월 3일 <http://www.riss.kr>을 검색.

6) 본 연구자는 관심이 점점 저하된 이유가 단지 그 방면을 연구하는 학자들만의 책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싶어도 자료는 물론 연구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하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탐탁하지 않게 여겼거나 위정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름을 바꾼 만주족은 중국민족이 아니고 그 역사도 중국 역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 왔었던 것이다. 특히 이민족 배척사상이 강했던 마오쩌둥은 그 사상이 확고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중국이 국공합작의 인연을 끊고 공산화로 통일하여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을 건국했을 때 건국절을 10월 1일로 새로이 제정한 것이다. 다만 원나라와 청나라의 역사를 중국 역사라고 하지 않으면 중국 역사가 단절되는 까닭에 중국은 원나라와 청나라의 역사도 중국역사에 포함했을 뿐이다.

그러나 역사를 후세에 인위적으로 포함한다고 타국의 역사가 자국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와 반드시 수반되는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중국이 원나라와 청나라 역사를 자국 역사에 포함했지만 이질적인 문화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원나라는 송나라를 멸망시킨 이민족의 정복 국가이며, 중국을 자체 병탄하였다. 원나라는 중국을 지배했으되 한족화되지는 않았으며, 지배층뿐 아니라, 제도 및 문화에서도 기존 몽골 제국의 유목 국가적인 특성을 유지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 시기는 몽고인에게 직할 지배를 당한 치욕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한족의 인구가 급감하였으며, 극심한 민족 차별 정책으로, 한족은 하층 민족으로 구분되어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다. 원나라는 자신들이 지배한 나라에 자신들 고유의 지배방식을 택하기로 유

명하다. 그에 따라 한족들은 자신들 고유의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몽골식 성명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몽골인은 한족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항상 감시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야간 통금 제도를 시행하여 해가 지면 돌아다닐 수 없게 하였다.<sup>7)</sup>

청나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통일한 후에도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면서 한족과의 결혼까지 금지하는 등 엄격한 차별화를 지켜왔다. 물론 나중에 청 왕조가 쇠퇴하면서 한족과 혈통을 섞고 동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들은 고유한 민족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sup>8)</sup>

그런 과정을 겪은 중국으로서는 원나라나 청나라를 자신들의 역사로 보기 힘들었다. 원나라와 청나라는 엄연히 다른 나라 역사이고, 단지 중국이 그들의 지배를 받았을 뿐이다. 더욱이 중화사상에 물들어 있는 한족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을 치욕스러운 역사로 몰아넣은 원나라를 몰아내고 주권을 찾아 준 명나라보다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가 더더욱 경계대상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청나라의 발상지인 구려벌은 단순히 경계대상을 넘어서서 그들이 반드시 지배해야 할 땅이다. 이미 내몽골을 지배함으로써 몽고에 대한 원한을 갚는다고 생각하던 중국으로서는 반드시 소유해야 할 땅이다. 이민족이 중국을 침범하지 못할 방어막으로도

7) 한국어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 2014년 4월 7일, '원나라' 검색 후 연구자가 재구성.

8) 브리태니커사전(<http://www.britannica.co.kr>) 2014년 4월 7일, '만주족' 검색 후 연구자가 재구성.



필요한 땅인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언제 지금의 통일 중국이 각기 같은 특성을 가진 민족이나 집단끼리 자치구나 혹은 독립을 추구해서 분할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중국은 통일과 분열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 통일 중국이 300년을 넘긴 적이 없는 중국으로서 청나라 이후 지금까지 지속된 통일 중국의 분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들과는 엄연한 이민족으로, 이제까지 침략자로 규정하던 청나라의 후손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 그들이 자신들의 발상지이자 고구려와 대진국이 지배하던 땅을 기반으로 독립을 추구할지 모르는 일이다. 더더욱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은 우리나라와 근원을 같이하는 민족이다.<sup>9)</sup> 중국으로서는 청나라의 후손들과 조선족이 연합하여 독립을 추구하는 상황과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해져서 영토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중국은 청나라의 발상지이자 고구려가 지배했던 동북쪽을 자신들의 영토에 포함했다가 최악의 경우 자치구로 인정해 주더라도 중국의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물이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영토공정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2013.09.23일 세계일보 인터넷 판에 보면 [그림 1]과 같은 지도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 기사가 실려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www.

rand.org)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고 러시아 일간 ‘로시이스카야 가제타’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급사나 쿠데타 등으로 현 정권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 예상되는 한·미·중 3개국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미·중이 이미 김정은 정권 붕괴 사태에 대비한 비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유출 방지 문제에, 한국은 중국의 북한 영토 점령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출처: 세계일보

[그림 1] 북한 급변 사태 시 한국-미국-중국의 예상 관할구역

9)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의 후손이다. 『금사』, 『송막기문』, 『만주원류고』 등의 중국 역사서에 의하면 청 태조 누르하치는 금 태조 아골타의 16대 후손으로 스스로 이름을 신라를 생각하고 신라를 사랑한다는 뜻의 아이신취려 누르하치(愛新覺羅 爾哈赤 : 애신각라 노이합적)이라고 지을 만큼 신라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중국이 지금까지 벌인 영토공정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구려가 차지했던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며 중국의 경제력 앞에 굴복한 미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지금까지 벌여온 영토공정의 목적이다.

## 2.2. 영토공정의 방법

중국 영토공정의 방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 문화와 역사를 중국화함으로써 그 문화와 영토가 살아 숨 쉬는 곳이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영토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배자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문화와 역사의 주인이 영토의 진정한 주인을 가리는 요소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간단히 말하자면 그들은 구려벌이 그들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문헌학, 천문학, 고고학 등의 방법으로 영토공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주장에는 신빙성이 결여된다. 그들이 정말 학문적으로 접했다면 구려벌이 우리 영토라고 중국 역사서에 기록되어있는 사실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 2.3. 영토공정의 내용

### 2.3.1.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중국이 동북방의 영토공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한 공정이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을 줄인 말로,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를 뜻한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성립된 국가이며 현재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이므로 고구려와 대진국(발해)의 역사 역시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이다. 동북공정에서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대진국 모두 다루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고구려다. 즉 고구려를 고대중국의 지방 민족정권으로 주장하고 있다.<sup>11)</sup>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민족으로 정의함으로써 고구려가 지배했던 영토를 중국영토로 정의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 남의 나라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허점을 찾아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은 그들이 구성한 기구와 공모하는 과제물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중국사화과학원의 중대

10) 문화와 역사가 영토와 직결된다는 것은 중국인민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전 중국 총리인 주은래(周恩來:1898-1976)가 1963년 6월 28일에 했던 연설에도 잘 나타나 있다.

11) 브리태니커사전(<http://www.britannica.co.kr>) 2014년 4월 7일, '동북공정' 검색 후 재구성.



과제'로 규정하고 9명으로 구성된 '공정'을 영도하는 기구가 되는 영도소조와 12명으로 구성된 '공정'의 학술 평가심의, 자문, 협조 기구가 되는 전문가위원회와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구성하였다. 공모하는 과제물은 연구와 번역류, 공문서류의 3대 계열로 나누었는데 2002년~2004년의 과제공모안을 보면 고구려와 대진국, 고조선에 관한 과제물이 주를 이룬다.

동북공정이 고구려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전기된 중점과제 중 그들은 이미 기자조선<sup>12)</sup>과 한사군, 대진국을 중국사로 편입해 놓은 상태이므로 고구려의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 2.3.2. 단대공정

단대공정의 정식명칭은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이다. 하상주단대공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대사(하나라, 상나라<sup>14)</sup>, 주나라) 연구 작업이다. 이는 제9차 5개년 계획의 공정 중 하나로, 구체적인 연대가 판명되지 않은 중국 고대의 삼대(하, 상, 주)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대를 확정하였다.<sup>15)</sup> 이것은 중국이 자신들의 역사가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동북공정을 실시했지만,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드는 데 주력했던 동북공정만 가

지고는 고조선 이래 우리가 지배해 온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에는 역사가 턱없이 짧다는 것을 인지해서 실시한 공정이다.<sup>16)</sup>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만드는 동북공정에 주안점을 두고 공정을 진행하던 중 고조선이 B.C 2333년에 세워지고 중국은 B.C 841년에 주(周)나라를 세운 것이 공식화된 역사라는 것이 드러나자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구려벌에 대한 영토문제를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다. 단대공정은 중국 역사를 시간적으로 팽창하기 위해 실시된 공정이다.

### 2.3.3.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

탐원공정(探源工程)은 중화인민공화국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한 공정 연구의 하나로, 정식 명칭은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이다. 중화 민족과 주변국가 및 중국소수민족의 시원을 연구하지는 것이다.<sup>17)</sup>

탐원공정은 동북공정과 단대공정으로도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에는 절대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중국이 그들 스스로 전설의 시대로 일컫던 삼황오제 시대를 역사시대로 만들려는 공정이다.<sup>18)</sup> 우리나라 역사는 줄여 잡아서 고조선 시대부터 본다고 해도 5,000년이다.

12) 기자조선은 여러 문헌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날조된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고조선을 중국 역사의 일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자조선을 주장하고 있다.

13) 이인철, 동북공정과 고구려사(서울 : 백산자료원, 2010), pp.19-28.

14) 주(周)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은(殷)'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므로 은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5) 한국어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 2014년 4월 7일, '하상주단대공정' 검색 후 재구성.

16) 고조선이 B.C 2333년에 건국된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반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건국원년이 B.C 841년 주나라의 건국으로 문헌자료로 확정되어 있었다.

17) 한국어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 2014년 4월 7일, '중화문명탐원공정' 검색 후 재구성.

반면에 중국은 주나라부터 시작해도 3,000년이다. 중국 역사가 우리 역사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구려벌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하구역에서 고조선 이전의 유물이 발견되기 때문에, 구려벌이 중국 영토로 귀속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자 역사를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낸 공정이다.

요하문명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라고 자랑하던 중국의 황하문명이 요하문명에 비해 시기적으로 훨씬 늦은 문명임을 알게 되자 자신들의 문명은 황하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요하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선조인 고조선과 그 이전의 역사인 신시배달국 등의 문화인 요하문명을 자신들의 문화로 왜곡함으로써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탐원공정과 맥을 같이 한다.

단대공정과 탐원공정은 중국을 시간적으로 팽창시키기 위한 공정이다.

### 2.3.4. 근대공정(近代工程)

근대공정은 상기 세 가지 공정과는 적용하는 시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중국이 이제까지는 영토공정을 고대사에 치중했던 것으로 본다면 근대공정은 고대를 포함한 근대 문명까지다. 고대부터 전래된 것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중국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리랑을 중국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율놀이와 검무, 통소 등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전초전인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 등이다. 또 근대 민족시인인 윤동주 시인을 중국조선족 애국 민족시인이라고 칭하면서 윤동주 시인이 중국 시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그 작품을 한문으로 번역하여 알리는 것들이 그 실례이다.

근대공정은 중국을 시간적, 공간적인 양면으로 팽창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다. 여기서 주지할 것은 중국이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고대사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지금은 근대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스스로 구려벌에 남아있는 유물들이 우리 민족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기에 벌인 공정이다. 우리 문화를 중국문화화함으로써 구려벌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중국의 55개 소수 민족 중 하나으로써, 중국문화를 즐기는 민족일 뿐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구려벌을 지배하는 것은 중국을 구성하는 55개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 중국 영토에서 생활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 3. 영토공정의 실태 분석

### 3.1. 동북공정의 실태

중국이 영토공정을 실시한 시기를 동북공정부터라고 잡는다.

18) 삼황오제시대는 중국인 스스로 전설의 시대라고 일컬어 오던 시대로 사전에서조차 그 연대가 매겨져 있지 않은 시대이다. 중국은 지금 전설의 시대를 역사시대로 만들기 위해 연대를 매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고구려를 철저히 깨 자신들의 역사 중 하나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동북공정은 1983년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역사지리연구중심이 설립된 이후 1998년 중국 지린성 통화사범대학교 고구려연구소가 ‘고구려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1년 6월 동북공정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면서 2002년 2월 18일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동북공정이 시작되었다. 5년 동안 총 연구비 약 1,500만 위안(약 23억 원)을 투입했으며, 중국 최고의 학술기관인 사회과학원과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등이 연합해 ‘동북변경의 역사와 현상 연구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다. 동북공정은 아주 비밀리에 은밀하게 진행하다가 2004년 동북공정 사무처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내용의 일부를 슬그머니 발표함으로써 역습을 피하고 공격을 받으면 지방의 일개 학술행사라는 핑계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공정의 전말 자체가 왜곡된 것이다.

최근 국력이 강해지면서 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 당시 부주석은 2000년 자신이 직접 중국 사회과학원의 동북공정 연구계획을 비준, 승인했음을 시인했다.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2002년 이전부터 국가적인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결국,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역사지리연구중심이 설립되던 시기부터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북공정의 과제물을 2004

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모집하지 않아 동북공정이 끝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중국의 영토공정은 동북공정이 시작이요 끝이라고 해야 옳다. 동북공정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단대공정이나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은 동북공정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 3.2. 단대공정의 실태

중국은 고구려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조선이 자리하고 있던 구려벌에서 고구려 이전의 유물들이 발굴되자, 고구려 역사만 가지고는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드는 데 많은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96년에 단대공정을 시작해 2000년 11월 9일에 완료했다. 이 공정에는 약 20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1999년 9월에는 ‘하상주단대공정단계성과학술보고회’가 열렸다. 2000년 9월 15일의 ‘하상주단대공정항목검수회’에서 그 내용이 정부에 의해 점검되어, 2000년 11월 10일에 공정의 수석과학자 4인이 중심이 되어 발표하였다.

그 결과 B.C 2070년경 하나라가 건국, B.C 1600년경 하나라가 상나라로 교체, B.C 1046년 상나라를 대신하여 주나라가 건국된 것으로 확정되었고, 또 상나라 왕 반경으로부터 제신(帝辛)까지의 연대를 확정하고, 주나라 왕의 재위 연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sup>19)</sup>

### 3.3.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의 실태

중국은 단대공정을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조선 이전의 우리 역사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설의 시대까지 역사로 만들 고자 하는 탐원공정 및 요하문명론을 제시하기 시작해서 진행 중이다. 탐원공정은 2002년 11월부터 중국 언론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2003년 6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됐다.<sup>20)</sup> 탐원공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요하문명론이다. 요하문명론은 요하 유역에서 발굴되는 유적들을 자신들의 유물로 만들기 위한 공정이다. 소위 그들이 주장하던 중화의 근원인 중원에서 발굴되는 유물로는 동북지방 즉, 구려벌에서 발굴되는 유물들이 자신들의 유물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중원의 그것들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앞설 뿐만 아니라 양식도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까지 중국의 자존심이라고 일컫던 황화문명이 중국 문명의 원류라는 주장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요하문명론을 내세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머지않아 마무리 되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3.4. 근대공정의 실태

#### 3.4.1. 근대공정의 일반적 실태

중국이 만주라고 부르는 구려벌에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생활하면서, 우리 영토의 표식인 우리 문화가 뚜렷하게 이어졌다. 중국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는 왜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해 내려오는 흔적은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대부터 근대에 일어난 문화까지 자신들의 것으로 왜곡하기 위해 근대공정을 진행 중이다.

#### 3.4.2. 무형문화에 대한 왜곡의 실태

중국이 2011년 ‘아리랑’을 자국의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국의 무형 문화로 등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물론 관심 있는 일부 외국 기관과 단체, 언론 등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아리랑’에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중국이 자국의 무형문화로 등록한 것이 그리도 중요한 것일까?

‘아리랑’이라는 민요가 생성된 시기는 고구려 초다.<sup>21)</sup> 그 민요는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도 불리고 있다. 그 민요를 부른다는 것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는 문화를 향유하는 민족과 나라의 정

19) 한국어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 2014년 4월 8일, ‘하상주단대공정’ 검색 후 재구성.

20) 한국어 위키백과사전(<http://ko.wikipedia.org>) 2014년 4월 8일, ‘중화문명탐원공정’ 검색 후 재구성.

21) ‘아리랑’이 민요로 불리면서도 그 종류가 다양한 관계로 그 생성시기가 미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몽골의 시조모 ‘알랑 고야’가 고주몽의 딸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접목하면 아리랑의 기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고주몽이 아들 유리 등을 데리고 남하했지만 ‘알랑 고야’는 원래 그들이 터전으로 삼던 곳에 남아서 몽골 시조모가 된다. 이때 ‘알랑 고야’가 남하하는 고주몽과 유리 등의 일행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라는 설이 유력한 설이다. (혹자는 ‘알랑 고야’의 측근이 ‘알랑 고야’의 서글픈 마음을 대변해서 불러 준 노래라고도 한다.) 언뜻 듣기에는 전혀 근거 없는 설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알랑 고야’의 ‘알랑’에 ‘이’모음을 첨가하면서 음미해 보면 도표에서 보듯이 아주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통성을 뜻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리랑’이 중국에서 불리는 것을 우리 민요가 중국에서도 불리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리랑’을 중국 조선족이 부르는 민요 중의 하나로 취급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민요를 부르는 조선족이 중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민요가 중국문화유산이라는 억지를 쓰기 위해서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2013년 7월에는 헤이룽장성에서 윗놀이와 검무, 퉁소 등을 성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함으로써 곧 중국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헤이룽장성이 고대부터 우리 민족이 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역사를 이뤘은 우리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사전에 그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그 영토 역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자는 의도다. 중국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문화유산을 자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4.3. 유형문화와 인물에 대한 왜곡의 실태

시인 윤동주는 아버지 윤영석이 구려벌 중 한 곳을 차지하는 북간도(北間島) 명동촌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는 평양에 있는 송실 중학교를 다녔으며 연희전문을 다녔다. 또한 그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때의 신분 역시 조선인<sup>22)</sup>이었다. 분명한 대한제국인(大韓帝國人)이고 우리 민족이며 국민임이 분명하여 우리말로 시를 썼다. 그의 대표시 ‘별 헤는 밤’에 ‘소학교(小學校)때 책상(冊床)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異國) 소녀(少女)들의 이름과’라는 구절이 있다. 그는 패, 경, 옥 같은 중국소녀들을 이민족(異民族)이라 일컫지 않고 이국소녀라고 노래하여 자신은 대한제국인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그림 2]에서 보듯이 중국은 버젓이 윤동주 시인을 중국조선족애국시인이라고 지칭한다. 그는 같은 시에서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라고 노래하여 북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밝힌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북간도에 살던 사람은 대한제국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의 소수민

원래 뜻	"I"모음 첨가
알랑 알랑 알랑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알랑을 두고 간다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은 유목민 생활을 하던 고구려 초기에는 발은 아주 중요한 신체부위다. 발병이 난다는 것은 이동하면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유목민으로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큰 일인 것이다.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생계에 지장을 받는 발병이 난다고 표현한 것이다. 아주 간절하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논문과 성격이 다르기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지만 아리랑의 맥을 고조선의 ‘공무도하가’와 구려의 ‘가시리’ 사이에 놓고 보면 우리 민족의 정서와 일치하는 고구려 시대에 이뤄진 민요라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2) 원래는 대한제국 인이 맞지만 일본은 우리나라가 제국, 즉 황제국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국호를 줄곧 조선이라고 명명했다.



족 중 하나인 조선족이라는 억지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나친 기우일지 모르지만 이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는 더 많은 대한제국의 인물들을 자국의 인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료출처: 전북일보

[그림 2] 중국이 세운 운동주 생가 비문

## 4. 영토공정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 4.1. 영토공정의 문제점

#### 4.1.1. 동북공정의 문제점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은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확정하려는 일념에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실행했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공정을 실행하면서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고 구려벌에 얽매어 억지로 자신들의 정통 역사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커다란 맥 중 하나가 구려벌이 변방의 이민족 자치국인 고구려가 지배하던 자신들의 영토라는 설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물론 훗날 청나라를 세운 여진족이 살던 땅도 바로 그곳이다. 이 문제는 고구려나 여진족이 구려벌을

지배했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나라에 지배를 받았던 한족은 끊임없이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이 세우는 나라를 열망했으며 그것은 홍수전(洪秀全)의 난, 일명 태평천국(太平天國, 1851년~1864년)의 난이라고 불리는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난은 현대 중국이 그 맥을 이었다고 자부하는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이어졌다. 바로 이 난에서 내건 기치가 멸만흥한(滅滿興漢)이다. 만주족이 지배하는 청 왕조를 무너뜨리고 한족이 중심이 된 나라를 세우자는 뜻으로, 중국 역사상 한족이 나라를 세울 때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농민봉기의 기조사상이다. 결국 한족만이 중국의 민족이기에 만주족은 배척의 대상인 이민족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마오쩌둥(毛澤東: 모택동)도 신해혁명에 가담한 이유가 청조를 멸하기 위해서라고 공공연히 밝혔다.

이렇게 이민족을 배척하던 나라가 갑자기 중국은 한족을 주축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이 이루는 다민족 통일국가라는 논리를 앞세워 동북공정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두 번째로는 동북공정이 역사적인 사항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하고 급조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미 논술했듯이 중국 역사는 길게 잡아서 3,000년이다. 그런 까닭에 중국은 동북공정을 고구려 역사와 영토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동북공정을 확정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유물을 발굴하자 그이전의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특히 요하유역에서는 무려 7,000년 전의 유물들까지 발굴되면서 중국을 당황하게 했다. 우리나라 역





점만 안게 되었다.

우선 그 가장 큰 문제가 자신들 스스로 문화의 기원이라고 하기 위해 만들어 낸 요하문명론의 기본이 되는 유물들이 모두 고조선 유물이거나 그 이전의 유물, 혹은 그 직후인 고구려 유물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유물들은 중국이 자랑하는 중원의 그것들과는 근원이 다른 북방 문화와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즉, 만주 일대의 요하문명은 중원의 황화문명과는 이질적인 문명으로 이 지역에서 보이는 빗살무늬토기와 피라미드식 적석총, 비파형동검, 치(석성에서 돌출하여 쌓은 곳)를 갖춘 석성(石城) 등은 중원지역에서는 보이지 않고 ‘요서-요동-한반도-일본’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북방문화계통이다. 이것은 요하문명의 주인공이 황하문명의 주인공과는 다른 사람들로 우리 민족의 선조라는 것을 보여준다.<sup>24)</sup>

이런 학술적 근거는 중국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중국이 자신들의 문화로 끼워 맞추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불법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려벌을 강제로 점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자랑해 온 한족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영토공정에 매진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이다.

#### 4.1.4. 근대공정의 문제점

근대공정의 문제점은 앞의 세 공정보다 더 심하다. 앞서 논한 세 공정이 고대사에 국한된 것이라면 근대공정은 전통적으로 우리 몸에 배인

자연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중국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벌이는 공정이다 보니 당연히 많은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다.

간단히 아리랑을 예로 들어 보아도 ‘아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불리는 민요다.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는 우리 민족만이 부르는 민요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조선족이 부르는 민요이니 중국의 문화유산이라고 한다. 얼마나 논리가 부적합한가? 대한민국의 민요를 대한민국과 같은 민족인 조선족이 부르는 것이라는 논지를 억지로 뒤바꾸려 하고 있다. 나아가서 단순히 문화와 역사를 넘어서서 사람에게까지 그 영역을 넓힘으로써 누가 보아도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인 인물들까지 자신들의 인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윤동주 시인이 북간도에서 살았다는 것만으로 중국인이라고 한다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처형한 곳이 하얼빈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마저 중국 애국 독립투사라고 호칭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 4.2. 영토공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 4.2.1. 영토공정의 기본 문제점에 대한 올바른 분석

중국 영토공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들이 만들어 낸 논리가 기본적으로 왜곡을 전제로 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런 문제점은 잘 파악하면서 우리 스스로 잘못 판단

24) 우실하, ‘중화문명탐원공정’ 대응책, 인터넷한국일보, 2008년 9월 4일

해서 저지른 논리의 모순은 지적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국의 잘못된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논리의 기본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동북공정이 1983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sup>25)</sup> 그러나 실제 동북공정이 시작된 것은 1963년 고대역사를 언급한 주은래의 연설부터 라고 봐야 한다.

2004년 8월 14일 국내 언론들이 주은래 전 총리가 지난 1963년 6월 28일 중국을 42일간 방문한 북한 조선과학원 대표단 20명과 만난 자리에서 ‘고조선-고구려-발해 모두 한국역사’이며 ‘영토침탈행위, 조상을 대신해 조선에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설훈 전 국회의원이 발표한 바 있다.<sup>26)</sup> 이 보도에 따르면 마치 주은래가 동북공정을 부정하고 과거사에 대해 잘못을 시인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주은래 연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주은래는 오히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라는 요지로 이 연설을 한 것이다. 주은래는 ‘과거 우리나라 영토였던 것을 지금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주족이 중국 땅을 크게 넓힌 공로’라고 하면서 “다만 이런 것은 역사의 흔적이고 지나간 일들이다.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조상들의 몫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밀어붙여 작게 만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 조상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하면

서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사과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북한과 중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사과임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 연설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에서, 중국과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벌인 우리 독립투사들을 망명한 조선동지라고 추켜세우면서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과 확연하게 구분 짓는다. 이것은 구려벌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은 이미 중국 국민으로 하나의 소수민족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다.

주은래의 이런 논지는 동북공정 영도소조 부조장 겸 전가위원회 주임인 마대정(馬大正)의 논문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우리 민족을 이주민족이라 서술하고 있다.

“조선족은 우리나라 이주민족 중 중국으로 들어온 시간이 제일 짧은 민족 중의 하나다. (중략) 국내외 많은 학자들의 견해로는 조선족의 이민사를 19세기 중엽 이후로 시작하는 것으로 공인하고 있다.”<sup>27)</sup>

이런 논지는 조선족이 구려벌에서 대대로 정착해서 살던 민족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로 이주해 온 소수민족이라는 견해다.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밝혀내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연구하고 발표할 때 중국의 논지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

25) 일각에서는 2002년 과제물 공고시기부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중국의 논리를 대변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6) 2004년 8월 14일,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이 보도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프레스미안의 보도를 인용했다.

27) 신형식·최규성 편저,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서울 : 백산자료원, 2004) pp.41-42.

#### 4.2.2. 문화와 역사적 접근에 의한 방법의 연구

중국 영토공정이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맞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인식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문화와 역사는 절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다. 문화는 그 영토에 대대로 사는 사람들이 축적한 생활과 사고의 모든 것이라면 역사는 그 변천과정을 기록이나 구전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어느 영토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그 안에 어떤 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어떤 역사를 지니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일시적인 지배로는 잠시 포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sup>28)</sup>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구려벌 안에서 이뤄진 문화를 살펴본다면 영토공정은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시급한 한 가지를 제시하자면 우리 역사서에 대한 바른 정립이다.

이미 논지한 대로 중국은 근원도 불분명하고 있지도 않은 유물들까지 조작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실존하는 우리 역사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에 소홀하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규원사화』다.<sup>29)</sup> 『환단고기』는 훌륭한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본이 없다는 이유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역사서로 인정을 못 받으니 차치하기로 하더라도 『규원사화』는 엄연히 원본이 존재하고 있으니 역사서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 역사서는 고려 말의 이명(李荈)이 지은 『진역유기(震域遺記)』를 참고하여 적은 것으로 『진역유기』는 고려 초 대진국의 유민이 쓴 『조대기(朝代記)』를 토대로 한 것이다. 『조대기』가 실재했던 것은 『세조실록』을<sup>30)</sup>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진역유기』가 실존했던 것도 확실하니 『규원사화』는 역사서로 인정을 해야 한다.

이 책의 ‘조관기’와 ‘태시기’에는 단군 이전의 환인(桓因)과 환웅천왕(桓雄天王)의 환국(桓國)과 신시배달국(神市倍達國)에 해당하는 역사가 적혀 있다. ‘단군기’에는 시조(始祖)단군(檀君)으로 알려진 단군왕검(王儉)부터 47대 단군고열가(古列加)에 이르는 단군의 명과 재위기간, 그리고 각 단군대의 치적이 서술되어 있다. 또 ‘만설(漫說)’에서는 우리나라가 구려벌을 잃어버린 뒤 약소국으로 전락한 것을 개탄하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 첫째가 잃어버린 구려벌을 되찾는 것이다. 이런 훌륭한 역사책을 소홀히 하는 까닭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토수복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28) 신용우, “문화적 접근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 근거 연구”, 『대한 부동산 학회지』, 제31권 제1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2103, pp.103-108.

29) 1675년(숙종 1년) 북애노인(北崖老人)이라는 호를 가진 이가 쓴 역사책으로 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서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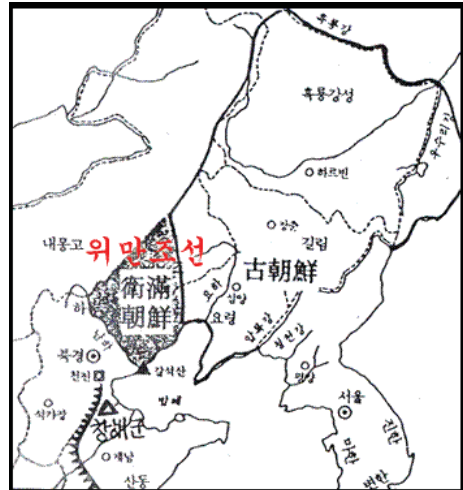
30) 세조 7권, 3년(1457) 5월 26일(무자) 3번째 기사에 『조대기』 등을 수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으로 교환해 줄 것을 명하고 있다.

#### 4.2.3.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

영토는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니라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다. 따라서 지금 중국이 영토공정을 펼치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국력이 중국보다 약하다고 해서 맞대응을 자제하거나 경제적인 보복이 두려워서 목소리를 낮추다 보면 결국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실례로 일본이 을사늑약이 맺어지던 1905년에 독도를 시네마현 관보를 통해 자신들의 영토로 등재하고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영토공정을 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꼴을 당하고 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4.2.4. 올바른 우리 영토관 정립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다. 당연히 헌법 3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잠시 지배했던 중국 대륙은 물론 멀리 시리아까지 우리 영토였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다. 그것은 지금 중국이 영토공정을 주장하는 것과 다른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일부 종교에서 주장하듯이 우리 민족만이 선민이라는 사상 역시 옳지 못하다는 견해다. 국경이나 나라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적어도 고조



[그림 4] 이병도 박사가 그린 고조선 지도

선이 나라의 형태를 갖춘 후부터는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국가가 존립했다고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타당한 이론은 고조선의 영토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물론 고조선 이전에 두 나라가<sup>31)</sup> 있었지만 그 두 나라는 아직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조차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으로 일단은 고조선을 우리 역사의 근본으로 삼아야 타당할 뿐만 아니라, 현대에 들어서 문화와 역사 등을 종합해서 비교한 연구를 볼 때 고조선의 영역을 우리 영토의 기본으로 삼는 것이 가장 옳다.

고조선 영역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그림 4]의 이병도 박사가 죽던 해에 그려놓은 고조선 지도가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다. 특히 [그림 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고인돌과 청동검 등 고조선의 대표 유물들이 발굴되는 곳과 비교해 보아도 이

31) 환국과 신시배달국을 뜻한다.



지도가 가장 근접한 고조선 영역이다.

비록 식민사관에 물들어 친일 사학자로 대표되는 인물이지만, 그가 그린 고조선 지도는 북한 학자들이 중국의 역사서와 지리서인 『한서』, 『위략』, 『산해경』 등의 고서들을 참고하여 나름대로 연구하고 1979년에 발표한 고조선 영역과 가장 근접하는 지도다.<sup>32)</sup> 북한 학자들은 고조선과 연나라의 경계를 지금의 난하로 보았다. 그러나 난하가 경계이지만 어느 정도 완충지대를 생각하면 실제 대릉하가 경계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한다.<sup>33)</sup> 실제 그것이 이 지도와 맞아 떨어지는 학설이다.

[그림 4]에서 위만조선을 포함한 경계가 난하다. 그리고 위만조선과 고조선으로 분할되는 경계가 대략 대릉하다. 그렇다고 위만조선이 고조선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위만이 준왕을 내쫓고 집권을 한 것은 단지 왕조를 바꿨을 뿐이지 국호는 그대로 ‘조선’을 사용하였고, 고조선 연합국의 하나로 남아 있었다. 아울러 [그림 5]를 보아도 대릉하(다랑허강) 주변까지는 고조선 유물이 나타나지만 그 유역을 지나서 난하(완허강)강까지에는 거의 유적이 분포되어 있지 않



[그림 5] 고조선 유적 분포도

다. 결국 북한학자들은 위만조선이 고조선의 일부로서 고조선의 제후국인 것을 알기에 위만조선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완충지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4]를 근거로 살펴본 고조선의 좌표는 아래 <표 1>과 같다.

이 좌표를 참고로 했을 때 면적은 약 1,284,000km<sup>2</sup>

<표 1> 고조선 지도의 극점 좌표(WGS84)

구분	60진법		10진법	
	위도	경도	위도	경도
동단	44.462014	136.265997	44.77226111	136.4499917
서단	41.554001	116.345507	41.92778056	116.5819639
남단	38.433632	121.081109	38.72675556	121.1364139
북단	52.353525	122.311816	52.593125	122.521711

32)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국과 벽을 쌓고 지내다가 1992년에야 겨우 수교를 했기 때문에 북한 학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고조선을 연구해서 밝힐 수 있었다.

33) 북한사회과학연구소, 『조선고대사』, (서울 : 한마당, 1989) pp.103-110.



다. 한반도의 6배에 해당하고 지금 휴전선 밑의 남한의 땅 12배다. 실로 엄청나지 않을 수 없다.<sup>34)</sup>

고조선 하나만의 영역을 정하는 데에도 학설이 분분한데, 그 이전의 나라들을 다룬다면 의견이 더욱 분분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학계와 정부, 민간운동기구 및 국민이 영토의 한계에 관한 의견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 5.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우리 영토인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영토공정을 바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중국이 벌이고 있는 영토공정은 오로지 고구려가 지배하던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겠다는 단순한 일념에서 시작했다. 중국은 그 일념을 완성하기 위해 역사와 문화를 조작했다. 그러나 날조한 역사와 문화는 그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영토공정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했지만, 동북공정이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자 단대공정, 탐원공정과 요하문명론이라는 새로운 공

정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구려벌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 스스로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면서 그들이 자부하던 한족의 정체성마저 무너뜨리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족을 제외한 이민족은 침략자로 규정하던 기존의 역사관을 뒤흔들어가면서까지 구려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중국이 아무리 조작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그 진실을 밝히는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영토공정에 대한 기본 문제점을 올바르게 분석해야 한다. 중국의 지도급 인사가 한마디를 하면 그것을 우리 편에서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실례로 1963년 당시 중국 총리이던 주은래가 한 연설에 대해 분석했다.

둘째, 문화적 접근에 의한 방법으로 우리 고대사에 관한 역사서를 바르게 봐야 한다. 그 실례로 『규원사화』의 역사서 인증문제를 지적했다. 우리가 『규원사화』를 역사서로 인정하는 그 날,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의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셋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미 독도에 대해 을사늑약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조치가 늦어진 것을 가지고 일본이

34) <표 1>의 좌표와 면적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조병현 박사가 제공해 준 것임을 밝힌다.

구분	사용프로그램
경위도 좌표	구글어스
경위도 좌표 변환	상용 변환프로그램
좌표 면적	토탈측량시스템

시비를 걸어오는 황당한 사건을 겪은 우리나라다. 지금이라도 중국이 벌이고 있는 영토공정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스스로 올바른 영토관을 정립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 스스로 우수한 민족임을 주장하는 것도 좋고, 선민사상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국제관계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관계에서 우리 영토를 밝힐 수 있도록 기존의 사서들을 바탕으로 정리된 이론으로 우리 영토를 주장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고조선 영역이 바로 우리 영토라는 논지를 펼쳤다.

항간에서는 지구가 하나인 세상이 되어 가는 데 과거의 영토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다. 지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경제적 교류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지구 위에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가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영토문제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 그리고 그 문제는 서로 자신들의 뿌리를 찾으려는 인간 본성과 반드시 맞물리게 된다. 언젠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때 서로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인류는 견잡을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각각의 나라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해 올바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영토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은 영토에 의한 전쟁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영토에 관한 정리를 한다고 한들 국력이 약한데 어떻게 그 영토를 수복할 수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력

은 반드시 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국력은 고조선에서 고구려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막강했다. 그 국력은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가더니 다시 중국으로 갔다. 머지않아 남북통일이 되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영토에 관한 정리를 하자는 것은, 당장은 수복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국력이 반드시 강력해질 그날에라도 수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 5.2. 연구의 한계성과 정책적 제언

본 연구자가 중국의 영토공정에 관한 대응 방안을 연구하면서 겪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중국이 쓴 역사서나 혹은 그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기타자료들을 직접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자료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인용한 것들이다. 실제 중국에서 발간된 자료들의 완전한 번역본을 찾기가 힘들었다. 아울러 영토공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도 없다. 그나마 동북공정이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려고 한다는 데에는 미흡하나마 입장표명이 있었지만, 영토공정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벌이는 일이다 보니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문제 제기가 없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토수복은 물론 영토공정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논지에서 보듯이 중국이 처음에

는 고구려사를 자신들의 역사로 만들려고 하다  
가 한계에 부딪히자 점점 그 범위를 넓혀 이제는  
고조선은 물론 그 이전의 역사마저 자신들의 역  
사로 삼고자 한다.

그에 대응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을 응용하면서 이 논  
문을 끝낸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고조선 역  
사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없다.”

### 【참고문헌】

- 북한사회과학연구소(1989), 『조선고대사』, 서울 : 한  
마당.
-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88), 『조선문화사』,  
서울 : 오월.
- 서영수(1990), “광개토대왕릉비연구 : 정복기사를 중  
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신용우(2013), “문화적 접근에 의한 대마도의 영토  
연구”, 『대한부동산 학회지』, 제32권 제1호, 사단법  
인 대한부동산 학회.
- 신형식·최규성 편저(2004),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서울 : 백산자료원.
- 우실하(2007), 『동북공정 너머 요하문명론』, 서울 :  
소나무.
- 육락현(2013), 『간도는 왜 우리 땅인가?』, 서울 : 백  
산자료원.
- 이인철(2010), 『동북공정과 고구려사』, 서울 : 백산  
자료원.
- 조병현(2012), 『북방영토연구』, 서울 : 백산자료원.
- 브리태니커사전, <http://www.britannica.co.kr/>
- 한국어 위키백과 사전, <http://ko.wikipedia.org/>